청주·울산서 만나는 선예禪藝 진수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종단의 정신적 지도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예 · 민화 · 도자 등 다양한 장르에서 독창적 작품세계를 보여 온 예술가이기도 하다. 성파 스님이 펼치는 예술세계는 선(禪)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기에 스님의 작품 세계를 선 수행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예술, '선예(禪藝)'라 명명한다. 성파 스님이 펼쳐 낸 선예의 진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전시 2선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성파선예전 〈明明白白: 밝고 밝고, 희고 또 희다〉

형태 없는 것을 보다

한 장의 한지가 전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다. 폭 3m, 길이 100m에 이르는 순백의 한지는 성파 스님이 직접 전통 방식으로 뜬 것으로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과 다르지 않다'는 '극소동대(極小同大)'의 통찰을 담아내고 있다. 언뜻 보기엔 그저 '빈 종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섬유질 가닥이 얽혀 만들어 낸 질감이 드러난다. 이 미세한 결들은 무수한 각자의 세계이자, 또 하나의 세계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 '성파선예전'에서는 한지 작품 '명명백백' 외에 스님의 옻칠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칠흑의 심연에서 자개 가루가 은은히 빛을 밝히는 '별들의 향연'은 마치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빛 같다. 어둠과 빛이 만들어 내는 원은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다.

옻칠 연작 '공에서 색으로'는 흰색 한지 위에 펼쳐지는 색의 향연이 공(空)에서 색(色)으로, 무(無)에서 유(有)로 이어지는 순환의 흐름을 보여 준다.

한지 작품이 감싼 전시장 안에 '별들의 향연'과 '공에서 색으로'를 배치하고, 가운데 공간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 감상하도록 구성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작품을 감상하거나 고요한 침묵 속에서 명상하며 그 뜻을 새길 수 있다.

직접 뜬 100m 한지 전시
'본래면목 마주하라' 화두
옻칠 작품 앞에 앉아 명상
문화제조창 11월 2일까지

강재영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은 "'성파선예전'은 침묵 속의 명료함을 담아내고 있다. 근본으로 돌아가 자기를 비우라는 의미다. 물병에 물을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맑고 깨끗한 본성 그 자체를 발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면서 "성파 스님의 작품은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이고, 사물의 핵심을 꿰뚫는, 승(僧)과 속(俗)을 넘어선 선예의 극한을 보여 준다"고 상찬했다.

9월 10일 전시장을 찾은 성파 스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에게 "한지는 멀리서 보면 그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실오라기 같은 가닥들이 모여 거대한 한 장의 종이를 이룬다"며 "이는 곧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전을 관람한 법산 스님(조계종 법계위원장)은 "한 올 한 올의 섬유질이 연결되어 하나의 종이가 되듯, 우리 모두도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특별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 보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전시는 11월 2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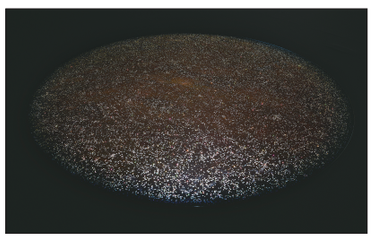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전시 주제이자 대표작인 '명명백백'은 폭 3m, 길이 100m의 한지로, 성파 스님이 전통 방식으로 직접 뜬 것이다. 사진은 작품 설치를 위해 전시장을 찾은 성파 스님. 사진 제공=청주공예비엔날레



옻칠 연작 '공에서 색으로'. 사진 제공=청주공예비엔날레



옻칠과 자개 가루로 만들어진 '별들의 향연'. 사진 제공=청주공예비엔날레

성파 스님 옻칠 한국화 사제전

옻칠로 되살린 암각화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성파 스님의 옻칠 암각화 작품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전시가 마련됐다.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9월 23일 울산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성파 스님 옻칠 한국화 사제전'을 개막했다.

스님은 울주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를 주제로 한 나전 옻칠 작품을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 연못에 수중 전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전시는 두 작품을 축소 제작해 아크릴판에 담아 전시장 내 수조에 전시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성파 스님의 대표작 2점도 선보인다. '수기맹호도(睡起猛虎圖)'는 검은 옻칠 바탕 위에 호랑이 형상을 새기고 자개와 금·은으로 장식한 작품이다.

'피안으로'는 옻칠을 한 알루미늄판에 은은한 빛과 반사광을 겹쳐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의 경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관람객은 작품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기념
서운암 수중 전시 옻칠 작품
'수기맹호도' '피안으로' 전시
울산 만디 11월 30일까지

전시는 '제10회 옻밭아카데미 회원 초대전'과 함께 열린다. 통도사 서운암 옻밭아카데미는 2014년 성파 스님의 지도 아래 문을 연 작가들의 모임이다. 2015년 첫 회원전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전을 이어 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회원들은 옻칠과 나전 기법을 해석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여러 겹의 옻칠과 자개 분할, 금·은 장식 기법을 활용한 작품으로, 지역의 자연과 일상적 소재를 화면에 반영했다.

성파 스님은 개막식에서 "울산은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해 문화의 뿌리가 깊은 고장이며, 태화사는 역사적으로 국방 사찰의 역할을 맡아 나라의 힘을 북돋웠다"며 "이곳에서 선사시대 암각화와 오늘의 예술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옻칠 한국화는 수행과 예술을 잇는 길이며, 제자들과 함께한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그 울림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환영사에서 "성파 스님의 작품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물결을 형상으로 드러낸 것과 같아, 보는 이마다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1월 30일까지.

하성미 기자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 연못에 수중 설치된 나전 옻칠 작품 '반구대 암각화'. '옻칠 한국화 사제전'에서는 이 작품을 축소 제작해 수조에 전시하는 형태로 만날 수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사제전에 선보이는 '수기맹호도'(왼쪽)와 '피안으로'. 사진 제공=조계종울산사암연합회

